

#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, 개성공단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한다!

- 개성공단은 세계 유일의 냉전에 따른 분단 및 군사적 대치 국가인 남북이 경제 협력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북측에 세운 산업단지였으나, 2016년 2월 중단됨.
- 현재 개성공단은 대북제재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중단 전까지 기존 제재 국면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됨. 일각의 개성공단 임금의 북핵개발 전용의혹도 직접적 입증근거가 부재인 상황임.
- 개성공단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통해 한반도 전쟁상황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, 나아가 남북 및 동북아 평화경제 협력체계가 항구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함.

## □ 분단,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냉전 및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된 한반도

-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미소 간의 한반도지역 남북 분할 관리로 시작된 한반도 분단은 이념대립의 냉전공간으로 변모되고, 이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아 1950년 6월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함.
- 1953년 7월 북미 간의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멈추었으나, 한반도는 상이한 체제 하에서 남북이 동족 간 군사적 대치 중으로 아직 종전 및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해서 전쟁은 '현재진행형'인 상황임.

## □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군사적 대립 극복과 평화구축 노력

- 남북은 70년 분단에 따른 불신과 대결 국면을 넘어 종전, 평화체제에 가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, 개성공단은 그 토대 위에 설립된 최초의 남북간 경제협력 산업단지임.
- 2003년 착공된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호 군사적으로 긴장·대치하던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측 군사지역에 조성·운영됨으로써 동 지역은 남북간 군사대치 지대에서 남북간 경제협력 지대로 변모됨.
-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, 2016년 2월 전면중단 전까지 100만평 규모의 공단에서 5만6천여 남북근로자 함께 협력하며 매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감.

## □ 개성공단 중단으로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경제

- 2016년 2월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로 중단됨.
-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성공단 운영과 북핵 개발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못한 상황임. 그렇기에 2016년 전면중단 전까지는 UN 대북제재(제825호~제2094호) 체제에서도 예외적으로 운영됨.
- 개성공단 중단으로 많은 개성공단 기업과 5만6천여 남북 근로자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고, 한반도 평화정착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.

## □ 개성공단이 가지는 평화·경제적 가치

### ① 한반도 긴장완화,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현의 유효한 수단

- 개성공단은 군사대치 공간에서 남북 주민이 상호교류를 통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고, 이러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만들어지고 축적되던 공간임.
- 경제협력으로써 군사적인 갈등과 전쟁위기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장치 기능을 수행함.

### ②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온 번영의 공간

- 남북이 상호보완의 경제협력을 통해 호혜적 이익을 향유하던 공간임.

### ③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공간

- 개성공단은 냉전에 따른 분단국가인 남북이 화해와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통일의 학습장임.

### ④ 남북 및 주변국 간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간

- 남북 및 주변국 등 다자간 경제협력은 동북아지역의 긴장·갈등의 완충뿐 아니라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임.
- 향후 개성공단은 남북 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기업도 유치, 국제적 공단으로 발돋움 할 것임. 이는 세계 갈등지역에서 공동안보 및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표준사례가 될 것임.

## □ 개성공단 대북제재 예외를 위한 호소

- 한반도는 남북, 그리고 美中의 이해가 부딪치는 곳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동북아, 나아가 전 세계적 불안정 요인임.
- 유래없는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핵·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가 고도화 되고 있음. 이에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이 동 문제 해결의 근원적 유효수단이 될 것임.
-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북측이 국제사회에 진출하여 책임있는 일원으로 그 권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절실함.
- 전 세계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, 지지가 필요. **“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” 청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변에 대한 확산을 호소드립니다.** 끝.